졸업유예 제도와 대학교육의 방향

서 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 머리말

최근 대학가에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하나가 'NG족(族)'이라 한다. NG(No Graduation)족이란, 사실상 졸업 요건을 갖추고도 졸업하지 않는 대학생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이른바 취준생(취업준비생)이라는 말이 생겨나기도 했다.

언론을 통해서도 몇 차례 보도된 바와 같이 특히 2015년 들어서 졸업 유예 제도는 대학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대학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고등교육법 제31조에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이상 6년 이하로 정해져 있다. 6년제의 의학 과정이나 법학 과정을 제외하면 학사학위 과정의 수업연한은 실질적으로 4년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재학생들의 졸업소요 기간은 평균적으로 남학생이 6년 4개월, 여학생이 4년 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대부분 2년 가까이 군복무를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남녀 학생 모두 최소 1학기 이상 더 길게 대학을 다니는 셈이다. 또한 2013년 12월 국정감사 자료 '2009~2013 5년간 졸업생 등록 학기 수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대학과 지방소재 국립대 13개교 23만 4,311명의 졸업자 중 9학기 등록 후 졸업한 학생은 7만 9,451명(33.9%), 10학기 이상 등록 후 졸업한 학생은 2만 7,749명(11.8%)인 것으로 나타났다(강경연 외, 2015).

사실 대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휴학 등을 통해 대학 졸업이 한두 해 늦어지는 것은 어제 오늘

의 일은 아니다. 문제는 과거에는 주로 남학생들이 군입대 휴학 등으로 졸업이 늦어졌던 데 반해, 최근에는 남녀 학생을 불문하고 휴학이나 졸업 유예를 하는 학생들이 몇 년 사이에 2배 이상 대폭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의 '2011~2014년 졸업 유예 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2월 현재 졸업 유예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대학이 전국 144개 중 121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편제)정원의 10% 내외 또는 그 이상의 졸업 유예 학생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졸업 유예 기간은 대학에 따라서 대체로 1-4년을 허용하고 있다.

졸업 유예 제도는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학생들이 주로 활용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유사하다. 첫째는 4년제 대학의 경우 대체로 120학점 대에서 140학점 대에 이르는 졸업이수 학점의 충족 시기를 늦추는 경우이다. 둘째는 졸업이수 학점을 모두 충족하고도 대학에서 졸업 필수 요건으로 지정해 놓고 있는 졸업 논문이나 졸업작품, 종합시험, 각종 자격증 제출을 미루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는 학점을 더 이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학생 신분에 가깝다면, 후자의 경우에는 이수 학점을 모두 충족했다는 점에서 수료생 그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2. 졸업 유예 제도의 쟁점과 본질

최근 우리 사회에 졸업 유예 제도가 이슈화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졸업을 미루고자 하는 학생의 수는 증가 추세인데 반해, 대학들은 이 제도를 보완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졸업 유예를 원하는 학생들이 학점을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와 추가 등록에 따른 비용 발생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 여러 대학들이 졸업 유예를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필수 학점 등록과 함께 적게는 10만원 내외에서 많게는 50만원 내외까지 등록 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는 4년의 재학기간 동안 등록금을 납입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들에게도 결코 작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대학은 4년간 가르쳐 온 학생들에게 평생 서비스의 정신으로 최소의 부담으로 최대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상당수의 대학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졸업 유예 제도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본질은 제도 자체를 둘러싼 논란보다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하며, 대학의 역할과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재학기간이 증가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을 더 쏟아부어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학비를 지원해 주는 학부모와 가계,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만큼 고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제한된 인프라와 예산을 바탕으로 교육을 수행해야 하는 대학의 입장에서도 재학생 수의 증가는 학교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이면 도서관의 자리잡기 경쟁에도 시달려야 하고, 학점 관리도 해야 하는 재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표현은 못하지만 '취준생' 선배들이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왜 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가? 궁극적으로 졸업을 미루면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며 취업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인턴십 경험 등 이른바 스펙을 쌓고자 한다는 점이다. 특히 인력을 선발하는 각종 기업들이 졸업생보다는 졸업예정자를 선호한다는 생각이 주된 이유이기도 하다.

실제로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 기관에서 졸업 유예 제도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절반 이상이 "졸업을 유예한 경험이 있거나 할 생각이 있다"(53%)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졸업 유예를 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부족한 스펙을 쌓기 위함"(51%), "막연한 두려움 때문"(46%), "기업의 졸업생 기피 현상 때문"(45%)이라고 답했다.

반면에 '4년제 대졸자의 졸업 유예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한 연구(양정승, 2014)에 따르면, 졸업유예자의 고용률(76.3%)은 일반졸업자(75.7%)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의 의견이나 대기업들의 발표에 따르면 취업 지원자들의 스펙이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공식적인 견해이다. 이는 취업준비생들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생각은 졸업을 유예해서라도 스펙을 쌓아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한다. 학생들은 관련 학원을 찾거나 학교에 적(籍)을 두고 개인적인 추가 학습의 시간을 갖기도 한다. 또한 졸업 유예 학생들은, 졸업은 곧 사회인이 되는 것이라는 신분 변화의 불안함 속에서, 계속 학교에 남아 다양한 학교 시설들을 이용하면서 취업을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이들에게 필요한 역량들을 대학이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온 것은 아닌지 대학의 역할과 책무성이라는 측면에서 깊은 반성을 하게 한다.

실제로 학생들은 대학들이 졸업 유예 제도를 축소하거나 보완하고자 하는 이유로 대학이 비용 부담을 줄이고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늘어나 각종 대학 평가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러한 지적은 일정 부분 사실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졸업 유예 제도의 존속 혹은 확대는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 대신에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게 하여 대학이 상대적으로 졸업생 대비 취업률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는 논리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졸업 유예 제도를 둘러싼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대학 본연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학생들을 제대로 교육해서 제 때에 취업하고 자신의 인생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핵심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4년간의 대학교육을 받고도 취업준비를 위해 각종 학원이나 준비 기간을 별도로 갖는다면, 이는 대학이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졸업 유예 제도가 반드시 학생들을 위한 최선의 본질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점이다. 학생들은 졸업 유예 기간 동안에 개인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거나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으나, 졸업 유예 문제는 개인적으로나 가계, 국가 차원에서 시간적, 경제적으로 고비용과 고부담을 갖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졸업유예자가 늘어날수록 노동시장 진입 연령도 비례하여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들은 결국 국가적으로 고비용 저효율을 가져와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졸업 유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교육의 방향

졸업 유예 제도가 기본적으로 취업난에 기인한 것이라면, 국가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사회에서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늘릴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 기업과 대학, 개인 모두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 대학이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가? 대학의 역할과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실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이 졸업 유예를 하지 않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자신의 가치를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대학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불가피하게 졸업을 유예하거나 혹은 졸업 후에라도 이들이 원한다면 도서관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30여년 전만 해도 대학진학률은 30% 초반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 대학진학률은 80%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대학 진학률이 낮았던 과거에는 대학 졸업은 곧 취업 및 성공의 지름길로 통했다. 따라서 과거 우리의 부모들은 소와 전답(田畓)을 팔아서라도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기에 상아탑(象牙塔)의 다른 말은 우골탑(牛骨塔)으로까지 불리었다.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대학교육이 진정한 고등교육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나 대입진학률 80%는 고등교육이라기보다는 보통교육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학문의 전당인 상아탑이 아니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인재와 인력들을 길러내야 하는 국민교육 기관이 된 것이다. 학문후속 세대 양성은 대학원이 그 기능을 담당한 지 오래다.

결국 지금의 대학은 학생들의 취업 및 진로 지도를 함께 담당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된 것이다. 반도체는 6개월이 멀다하고 세대를 달리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인류의 과학기술 문명의 발전과 그에 따른 경제와 문화의 지형도는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대학교육도 상아탑 속의 학문 전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 시대를 예측하고 현장의 수요에 맞는 준비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숨 가쁘게 나아가고 있다. 융복합의 특화된 교육이 강조되고 있고, 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입시위주의 고교교육을 정상화하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특성화하고, 학부교육 선도 모델을 육성하고(ACE),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육성(LINC)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학부 신입생 단계부터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교양교육, 융복합의 다양한 전공 트랙 교육, 학생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경험하며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통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인재를 길러나가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학생들의 핵심 역량을 길러 단지 국내만이 아닌 국제무대에서 자신들의 역량과 가치를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대학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다가온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의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대학 입학 후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발견하는 시기는 여전히 4학년 졸업반이 되어서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상황에 따라 이들 앞에 놓인 선택의 길은 졸업 유예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대학 신입생 시기부터 바로 취업 준비에 들어간다는 안타까운 현실의 젊은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들조차도 자신들의 미래가치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

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조기에 진학과 취업의 진로지도를 실시하되, 창의적인 인문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적인 창의융복합 전공을 스스로 설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역량까지도 길러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은 단지 대학 4년간의 교육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대학 입학 이전은 물론 대학 입학 이후까지도 관심을 갖는 생애 전주기적 교육을 중심으로 대학의 역할과 위상을 전환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으로 학생들이 대학 재학 기간 동안은 물론 수료와 졸업 후에도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자기설계전공 제도의 확대와, 스스로 취창업이나 새로운 융복합 학문 분야를 탐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도전학기제도의 도입,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미래설계 장학금 제도 등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종합적인 포트폴리오 평가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도 새로운 대학의 역할에 필요할 것이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도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와 상담 지원은 필수적이다. 졸업과 미취업에 대한 불안감에서 졸업 유예를 통해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4. 맺음말

졸업 유예 문제는 단지 학생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겠으나, 진로에 대한 목표가 불명확하거나 목표 설정이 늦은 학생들에게서는 졸업 유예 결정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졸업 유예 제도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대학이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 교육하고 조언하며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임 있는 대학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학문탐구를 위한 진학인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취업 진로지도에도 대학이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대학교육을 제대로 받고, 제 때에 취업을 하거나 자신의 목표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대학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대학 행정 담당자의 일원이기 이전에, 대학생을 자식으로 둔 부모 중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당연한 바람일지도 모르겠다. 이 땅의 젊은 학생들이 모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모든 교직원과 학부모의 바람이자 책무가 아니겠는가.

필자소개

서 혁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에서 학사, 서울대 대학원 국어교육학과에서 석사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교육부 교육과정 연구위원, 국어교육학회 부회장, 한국독서학회 부회장, 이화여자대학교 교무처장, George Mason University 객원교수, The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객원교수, 전주교육대학교 교수를 역임하였다.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국어교육학과 사고』(공저), 『독서교육론』(공저), 『언어와 교육』(공저) 등이 있으며, "다문화 배경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평가 방안", "공공 문식성 제고를 위한 공문서 텍스트의 평가와 분석", "시선추적장치를 활용한 읽기 과정 연구의 현황과 가능성 탐색" 외 다수가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국어교육, 독서교육, 텍스트 복잡도 연구 등이다.